

[H Report] Renaissance 2022.06.12

현재의 시장은 무척이나 어지럽고 방향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전체시장의 불안감과 본업의 호황의 사이에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그러하였듯이 묵묵하게 현재의 일을 하시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트럼프 리플레이션에서 2018년부터 2019년의 미중 무역갈등,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코로나 기간, 그리고 2022년 초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건이 있었고 2022년 하반기의 경우에는 미중전쟁에 대한 그림까지 시장과 경기는 정치와 질병으로 인하여 쉬지 않고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본 보고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일에 대한 흐름에 대한 해석과 단기적으로는 정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슈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시장 전체에 대한 그림을 그려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수 차례 이야기를 하였던 중국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이미 발생한 사건으로 '정보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참고로 저희도 단순한 투자에서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훌륭한 사업가분들과 앞으로 5년 간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부족한 제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 Political Wrap Up

일반적으로 정치에 대하여 특정한 상수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이 없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며 정치적 변동성이 낮은 경우에는 이러한 방식에 크게 문제는 없지만 현재와 같이 정치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경우에는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존재에 대한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공장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있었거나 대체불가능한 중요한 원재료 등이 해당 국가에서만 공수가 된다고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저희가 동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러우전쟁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이지 해당 국가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빛과 그림자는 언제나 함께 있는 법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 하반기에 발생할 수 있는 동아시아전쟁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며 발생 가능한 변수에 대한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앞만 보고 가면 언제 가는 무조건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됩니다.

2020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2021년 바이든 행정부로의 변경점은 중국에 대한 정책이 크게 수정되었다는데 있습니다. 2021년 초기에 발생한 바이든 행정부의 미숙함에서 발생한 실수들은 미래에 있을 문제들을 앞당기게 되었는데 과거에 적었던 글들을 상세하게 적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시간순으로 중요한 내용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Date	News	Note
2021.01	바이든 행정부 내각 완성	트럼프 헌법소원소송으로 지연됨
2021.01	러시아 - IRAN JCPOA에 대한 협상을 하지 말 것을 제안	트럼프 행정부에서 구축하였던 에너지 연합 (New OPEC) 시스템에 대한 유지를 희망
2021.01	바이든 행정부 IRAN Envoy로 Rob Malley 지정 Biden taps Rob Malley as special envoy for Iran	에너지 연합에 대한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이때 러시아-미국의 관계는 균열이 발생함
2021.02	러시아-중국 동맹강화 West concerned by closer Russia-China ties, top NATO general says	산유국이었던 러시아는 같은 산유국인 미국의 이란 공급재개 및 친환경정책 방향에 대하여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2014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유수입국인 중국에 대한 재협상을 시작
2021.02	중국 국내에 대한 통화정책-재정정책의 전략 수정 및 위안화 기축통화 작업에 대한 재진행 '중국 돈줄 조인다' 2021년 통화정책 레버리지 감축에 초점 - 뉴스핌	사실상 현재의 중국 문제가 발생하게된 원인이며 중국 부동산 경기를 악화시키게 한 중요한 원인임
2021.03	미-중 앵커리지 미팅 협의 불발	중국의 대미 정책은 중국-러시아 연합전선의 형성으로 인하여 완화정책에서 강공으로 변경
2021.03	중국-이란 25년 에너지 공급계약 체결 Iran and China sign 25-year cooperation agreement	2022년에서 축의 변경을 의미한 뉴스이며 중국은 더 이상 미국이 설정한 Sanction System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 이때부터 미국은 자신들의 전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함
2021.04	미국 내부에서 중국에 대한 명확한 정책이 없음을 질타하기 시작함 China maneuvering to expand global influence, undercut U.S., intelligence report finds ANALYSIS - The Iran-China deal amid the global power transition	여기서 미국은 자신들의 친환경-이란 전략이 러시아-중국 연합전선을 형성하게 만들었고 현재의 중국을 성공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는 러-중 전선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2021.04	미국 - 흑해 함선 파견을 취소함 U.S. drops plans to send destroyers into the Black Sea due to concerns over Russia	미국은 이때부터 러시아에게 구애를 시작하였으며 러시아관련 정책이 온건적으로 변화함
2021.06	미국 - 러시아가 제네바에서 회담을 진행함 Biden-Putin summit: US and Russian leaders meet for tense Geneva talks	모호한 에너지 정책으로 인하여 미국은 러시아에게 줄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았으며 이때 Nord-Stream II에 대한 암묵적인 합의를 하게 됨
2021.06	우크라이나는 Nord Stream II 딜에 대한 강한 반대를 표현함 Ukraine's Naftogaz warns against 'compromise' deal on Nord Stream 2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의 수익성 및 정치적인 중요성을 알고 있으며 이러한 파이프라인의 추가 설정으로 인하여 자국의 대-러시아 지위가 약해짐을 알고 있었음
2021.07	미국 - 우크라이나에게 조용하라고 압박 U.S. urges Ukraine to stay quiet on Russian pipeline	여기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기틀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임

이후에 발생한 뉴스들은 비교적 생생하게 기억하시고 있으실 것이니 추가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러시아 관계재설정 및 아프카니스탄 철수 등은 모두 중국에 대하여 전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며 1.5년이라는 기간동안 어느 정도 그것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초기 실수로 인하여 중국이 미국과 대항하는 자세로 변경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내부적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것이 정치적 불안정성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을 압박하는데 최선의 환경이 나온 것은 의도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천운으로 보여집니다.

IPEF 등을 통한 중국 압박에 대하여 한국의 새로운 행정부는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이것이 향후 중국의 한국 경제보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과 중국 내부의 이슈가 매우 날카로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점은 2022.02 중국 보고서에서 이미 기록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 Report - China Crisis 2022.02.03](#)

현재의 그림에서 러시아와 미국의 직접적인 충돌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EU가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가 되는 그림이 미국에게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그림은 의도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이며 다만 그 판에서 우크라이나의 역사만 슬프게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VOA 한국어

바이든 "러시아 본토 공격할 무기 안보내"...우크라이나군 '루한시크 전면 철수' 위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로켓시스템을 제공할 경우,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일대 주요 도시들을 빠르게 접수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움직임을 억제할...



그리고 러시아의 경제가 어렵다고 하거나 푸틴의 건강이 위험하다고 하는 모든 뉴스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상태에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깊게 읽을 가치는 없습니다.

푸틴, 얼굴 부은 이유는? "암 투병 때문"

기사승인 2014. 10. 27. 17:20

위의 뉴스는 2014년 크림반도 사건 때 러시아를 공격하는 서방언론에 의해서 작성되었으며 러시아 내부 반대파에게 정치적인 힘을 주기 위한 의도로 작성된 글입니다. 다만, 이후에 푸틴이 물리적 힘으로 상대를 암살하여 사건은 종료된 적이 있습니다.

뉴데일리

'푸틴 정적' 넴초프, 모스크바서 암살, 엿서는 이미...

러시아 언론 "푸틴 대통령에 반대하는 야권지도자, 거리시위 이를 앞두고 살해 당해".

2015. 2. 28.



2022년 하반기는 정치적으로 매우 격변기가 될 것입니다.

알고 있는 위기는 기회가 되듯이 이러한 과정에서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2. Market Wrap Up

기본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해석을 먼저하고 그 다음으로 정치에 대한 분석을 해야 하지만 현재시점에서 정치를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기와 관련하여 현재 존재하고 있는 주된 의견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물가는 오르지만 경기는 좋지 않은 특이한 현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기 전망은 중립적이거나 보수적인 자세로 사업을 하시고 있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겠지만 증자나 차입 등을 통한 사업확장을 고려하시고 있는 분들에게는 약간은 고민스러운 이야기가 됩니다.

현재의 시장을 정치적인 변곡점을 제외하고서 이해를 해야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시장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비자물가가 오르면서 금리가 오르는 시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가는 분기별로 작성되어 미국의 경우 2개월뒤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매일 매일 지표가 나오는 금리에 대하여 조금 더 민감하게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로 들어가면 한도 없기 때문에 2000년 이후에 발생한 인플레이션 시장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내용	참고
2003 ~ 2007	실물기반 호황장	리만사이클로 종료됨
2016 ~ 2018	트럼프 리플레이션	미중분쟁으로 종료됨
2019 하반기	미중 무역 분쟁 종료기점	COVID로 종료됨
2021년 ~	진행중	전쟁으로 가속화됨

금리가 오르는 구간에서는 언제나 인플레이션이 시장에 주는 충격에 대한 우려감이 많지만 실질 경기가 우수하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쉽게 지워지는 편입니다. 이러한 우려감은 시장의 정상적인 반응에 가깝습니다.

[2004.5.11] 사골처럼 우려지는 1970년 뉴스는 2004년에도 나왔었네요

CNN Business

faking a 16-year breather
Through history, stocks have gained as they flattened out in roughly 16-year cycles. Are we still in the first half of another flat cycle? ©2004 News Service of America, 2004-present

Is it back to the '70s for the stock market? - May. 11, 2004

... fear that performance could be repeated in the decade to come. ... Adjust that for the runaway inflation of the period, and things look even worse.

2004. 5. 11.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은 강한 소비시장에 근거를 두고 공급은 후행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소비자물가 상승사이클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다만, 2022년의 경우 미국에 의해서 잘못 정리된 에너지축과 이로 인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것이 가속화가 된 점은 있지만 이러한 지리적, 정치적 변수를 조금 덜어내게 된다면 Post-COVID가 오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사건인 것입니다.

2022년 인플레이션의 특이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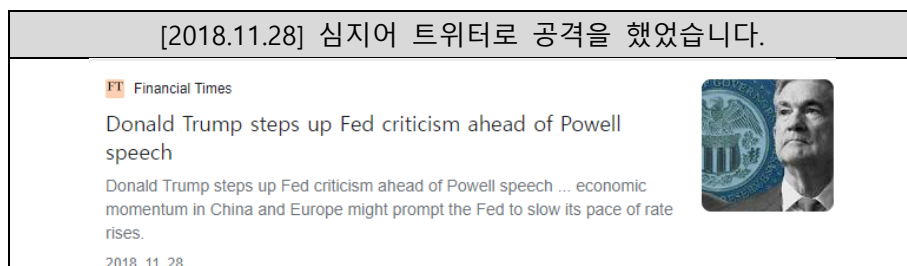
2022년 인플레이션은 두번의 시간이 지연되면서 발생했다는 점과 통화정책과 관련한 인류의 실수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시작점이 특이하며, 발생과 동시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속화가 되었고 미중 분쟁으로 인하여 그 가속화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특이합니다.

A. 시간지연

시장이 어려워지면 정부는 통화정책을 사용하고 사용된 통화정책은 실물경기를 회복시켜서 금리 상승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물시장의 성장으로 인한 경기 상승은 매우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많은 차입구조를 만들게 되고 이러한 차입은 그 속도를 가속화 합니다. 그리고 Recession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융역사는 언제나 반복되는 것이며 레이달리오가 'How the economic machine works'에서도 표현하였듯이 신용사이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입니다.

첫번째의 시간 지연은 2019년에 시작하였습니다.

트럼프에 의해서 시작된 미중무역 갈등 구조는 2018년 하반기에 시장을 크게 왜곡하였고 이를 FED의 파월은 실물적인 이유가 아닌 정치적인 이유에서 시작하였으니 정치인이 풀어야할 문제로 단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지속적인 FED에 대한 정책 압박으로 인하여 결국 2019년 상반기에 FED는 정책을 선회하게 되는데 그것이 첫번째 시간 지연 사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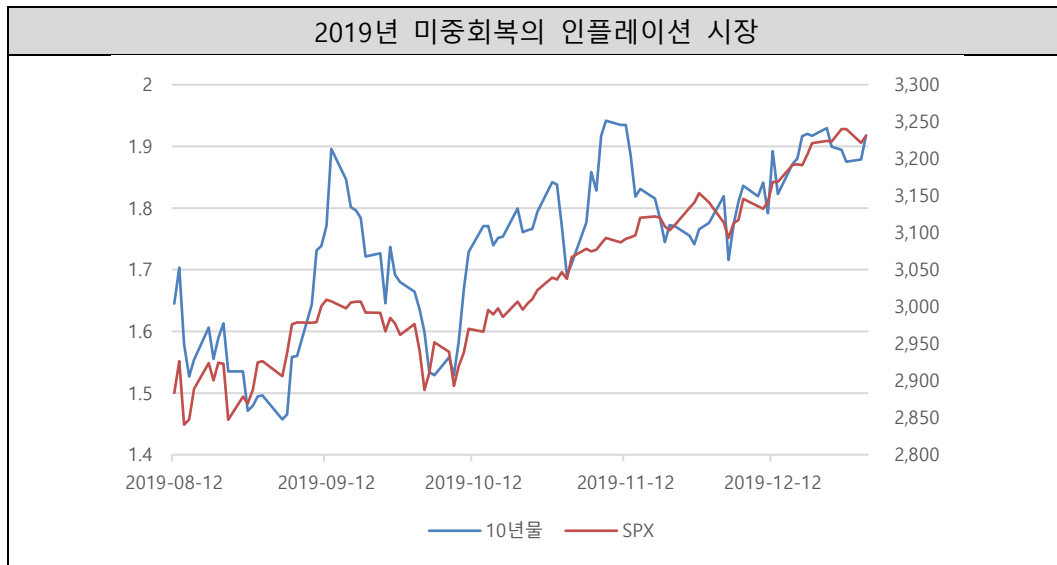


여기서 선회한 통화정책으로 인하여 당시 제가 'The Last Cycle'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2018 ~ 2019년 분쟁은 생각보다 재미있는 부분이 매우 많지만 따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2019년의 FED 정책의 선회가 실물시장에 근거를 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대응이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의 시간지연은 2019년에 발생합니다.

2019년 우리는 미중의 작성하는 합의문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라이트하우저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중반이 넘어가면서 드디어 기다리던 미중의 합의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다시 지연되었던 인플레이션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라고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세계적인 질병이 발생한 것은 천재이지만 여기에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통화를 시장에 풀게 한 것은 인재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2021년 연말보고서에서 작성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으로 인플레이션은 다시 지연이 되었으며 그 두번의 지연으로 2022년에 Post-COVID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2022년은 정치적 리스크가 이 속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리고 지리적으로 추가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B. 정치적 그리고 지리적 사건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인 대립각도가 어떤 것인지는 2021.03, 2021.05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중국에 대한 내용은 2021.10, 2022.02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2022.01 보고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의 인플레이션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건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미중 갈등을 조금 더 빠르게 경험하였을 것이니 결과는 비슷했을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서 세계는 우크라이나에게 냉소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이는 냉정한 세계에서 '심정적으로 도울 수는 있으나 나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으면 안된다'라는 시장의 기본원칙을 고려하였을 때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윤리적으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희는 상인이기 때문에 냉정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러시아는 시장으로 복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가 패전국이라던지 푸틴 건강이 위험하다는 뉴스와 같은 잘못된 프로파간다의 굳이 들으실 이유는 없고 러시아가 시장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핵심이니 사업을 하시는데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하반기가 되면서 중국에 대한 리스크는 크게 전이될 것이며 이는 제조업의 리로케이션(Re-location)을 유발할 것입니다. 이미 2차전지 등에서 시작되고 있는 제조지역의 강제적인 변경은 이번 전체 싸이클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C. Re-location

중국이 세계를 대상으로 제공하였던 낮은 인플레이션 흐름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낮은 인건비와 지대비용을 고려하여 배정되었던 세계의 생산기지는 그렇게 발생한 잉여자원을 바탕으로 미국 중심의 시스템에 대하여 반기를 들었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은 제조업에 대하여 분산을 해야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군사적으로 대항이 어려운 한국, 일본, 대만과 같은 국가와 근접한 멕시코, 그리고 중국의 대항마로 키워지게 될 인도시장까지 편한 중국 시장을 이탈하여 전세계로 생산을 이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배터리 산업에서 중국의 CATL, BYD 등을 보기가 어려운 것은 한국의 배터리가 더 싸고 효율적이기 때문인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리스크가 없는 상대방이기 때문에 선택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Re-location은 기업들의 추가적인 증설을 가져오게 되고 구인난으로 연결되며 이 부분이 로봇산업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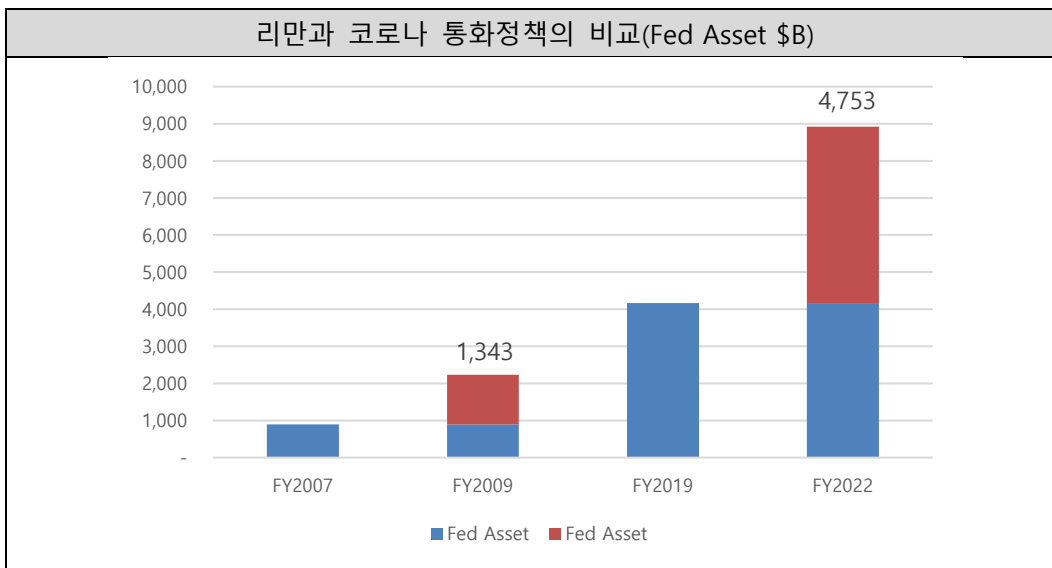
그리고 한국 기업의 전략적인 포지셔닝도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3. Perfect business cycle

위에 글은 현재 시장을 정리했을 뿐이고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매크로 경제를 정확하게 읽고 오차가 없이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노력을 한다면 계절의 변화정도까지는 추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미국-중국의 그림에 대하여 예측하고 이해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에 속하며 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하지만 그렇게 핵심적이지는 않습니다. 사업에 있어서 핵심은 경기에 대한 해석이며 이는 사업하는 분에게 있어서 확장을 해야하는 시점인지 축소를 해야 하는 시점인지 아니면 매각을 해야하는 지, 인수를 해야하는지를 결정하는 입장에서는 경기가 정치보다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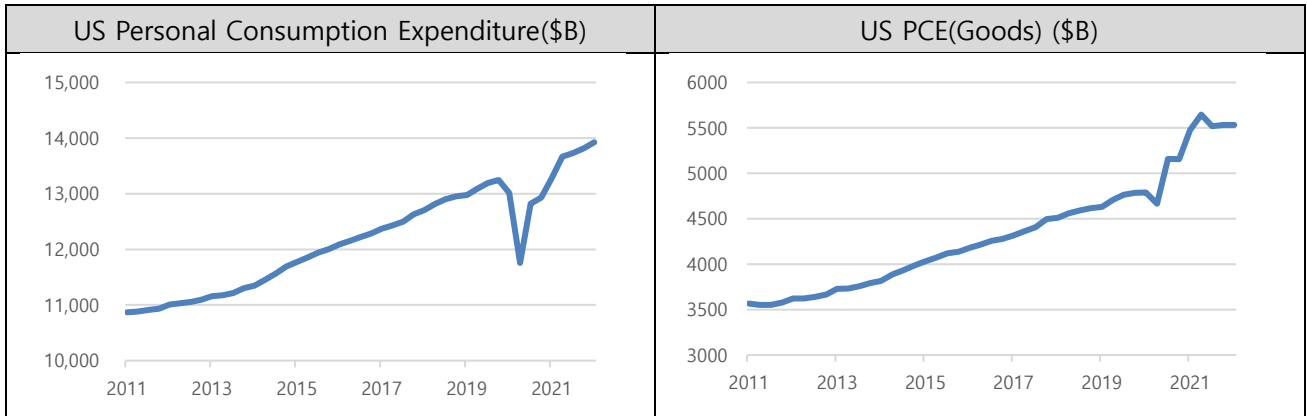
2008년의 리만에서 시작된 통화시장은 본래는 2018년에 끝났어야 합니다. 통화를 인위적으로 흘리는 것은 실물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돕기 위함입니다. 그 통화를 통하여 위기를 극복한 실물시장이 스스로 걸어다니게 될 때는 통화정책은 소리 없이 뒤로 물러나야 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하였듯이 불필요한 통화가 두번 나오게 되었고 이것이 앞으로 심각한 사이클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원래 견조한 실물시장에서 추가적으로 발행된 통화는 시장의 소비력을 매우 강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 강한 소비력이 현재 시점에서 발생하는 공급부족의 핵심이 됩니다. 강한 소비력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이해하고 있는 부분일 것이며 언론상으로 나오는 경기불황과 사업이 서로 연결되지 않아서 혼동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기라고 하는 것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고 정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기업인들은 본질적인 시장을 보아야 합니다. 개인이 소비할 수 있는 품목 중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만 보더라도 대기수요가 1년인데 이러한 사이클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경기를 자동차산업 사이클이라고 보셔도 무방하며 이는 1920년 Roaring 20's 이후에 오랜만에 오는 사이클입니다.

강한 소비력은 데이터에서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강한 소비력의 근원은 실물시장과 통화시장에서 유발되었으며 이는 이미 설명한 부분입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동차산업과 같이 무거운 산업의 성장을 유발하였으며 기업들의 투자사이클을 증가시키게 되었으며 중국 이벤트로 인한 Re-Location은 기업증설 사이클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업투자 Cycle

2 Aug, 2021

Global corporate capex
poised for biggest surge since
2007, S&P forecasts

기업투자의 증가는 채권시장을 흡수하고 토지를 구매하며 고용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고 상업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며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리는 채권시장의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되는 법입니다. 그러니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돈을 많이 필요로 한다는 점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금리가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업률의 하락




BS Business Standard

US job growth beats expectations; unemployment rate steady at 3.6%

US job growth beats expectations; unemployment rate steady at 3.6%. Economists polled by Reuters had forecast payrolls increasing by 325,000...

1주 전



인건비의 상승	
<p> Morningstar</p> <p>Job and Wage Growth Moderating in the US, and That's Good ...</p> <p>The slower pace of wage increases showed up in a 0.3% increase in average hourly earnings for May—the same pace in April, but down substantially...</p> <p>6일 전</p>	
그리고 이러한 함수가 다시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p> Fitch Ratings</p> <p>US Consumer Spending Supported by Strong Job and Wage ...</p> <p>Concerns that high inflation could squeeze U.S. real household incomes and consumption have been offset by strong labor income growth. "Given..."</p> <p>3일 전</p>	

이러한 점을 조금만 해석을 해본다면 사업을 확장하거나 하는데 있어서 최선의 시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업의 영역으로 확장을 하고 있으며 가는 길에 있어서 기업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4. 맺음말

2022년의 주식시장은 매우 어지러울 것이며 사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주가지수에 의하여 사람들은 더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기와 관련한 부정적인 뉴스들도 분명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제 계산으로 2022년의 인플레이션 사이클은 거의 100년만의 경기사이클에 해당할 것이며 생각하시는 것보다 매우 더 높게 경기가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판교의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료가 3년을 기점으로 두 배가 오른 것은 기업들이 얼마나 확장하고 있는지 혹은 새롭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증에 해당하며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기업경기 사이클과 같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2008년 리만 이후에 세계가 미친 듯이 통화정책을 사용한 것은 지금과 같은 실물시장이 오기를 바라면서 이행한 것입니다. 드디어 오는 인플레이션 실물시장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사업을 하시는데 두려움이 없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옆에서 지속적으로 도울 것이며 아마도 함께 사업을 하자는 제안을 하게 될 것입니다.